
Purity is Half of the Faith: Islam and Excreta

Hyondo Park
Sogang University

Abstract

A new currency system called “Feces Standard Money,” which the Science Walden Center a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has created, is changing the existing view of excreta. Feces Standard Money is based on the idea that a person’s feces are valuable that are treated without water and transformed into the form of energy or compost. The value of such feces that one person produces in a day is defined as 10 *Ggool* (10 Honeys). Feces Standard Money can help people share good values, in that Feces Standard Money transcends the value standard of existing money, placing humans at the center of every value, and aiming to return humans to real and original humanity. As an alternative currency with a new value standard, Feces Standard Money creates a new level of capital: toilets, facilities producing energy from feces, pipes transporting bio-energy from feces, electricity generation facilities using bio-gas from feces, buses running on bio-energy from feces, restaurants using energy from feces, and farmland cultivated with compost made from feces and urine and with liquid manure, and so on. This paper discusses a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Muslim perception of excreta as contaminating pollutants to an ecological substance. Islamic law defines excreta as essentially impure. Muslims regard purification as half of faith. Composting toilets can help save the environment as feces are treated without water and used to make bio-energy. If such toilets are used widely, then the Muslim perception of excreta may change from essentially dirty to an ecological substance.

Key words : Feces Standard Money, Islamic Law, Purity, Cleansing, Composting Toile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CRC: NRF-2015R1A5A7037825).

Received December 7, 2021 **Revised** December 11, 2021 **Accepted** December 28, 2021

Author: Hyondo Park, Professor, Euro-MENA Institute, Sogang University
hyondopark@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정결은 신앙의 절반: 이슬람과 똥*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요 약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사이언스월든센터가 창의적으로 고안한 똥분위화폐는 똥을 보는 기존 시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루 한 사람이 누는 똥을 물로 처리하지 않고 바이오에너지와 비료로 만들 때의 가치를 10꼴로 삼는 똥분위화폐는 타인과 착한 가치를 나눈다. 똥분위화폐는 기존 화폐가 지닌 가치 기준을 넘어 인간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인간을 인간 본연의 가치로 되돌려 주고자 한다. 새로운 가치 기준을 지닌 대안화폐인 똥분위화폐는 화장실, 똥 에너지 생산 시설, 똥 바이오에너지 이송 배관, 똥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전기 발전 시설, 똥 바이오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마을버스, 똥 에너지를 이용하는 식당, 똥과 오줌으로 만든 퇴비와 액비로 농사짓는 농토 등 새로운 차원의 자원을 만든다. 이 논문은 무슬림들이 똥을 더러운 오염물에서 친환경물로 바꾸어 볼 수 있을지 논의한다. 정결을 신앙의 절반으로 여기는 이슬람교 신앙 전통에서 똥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물질이다. 그러나 물로 똥을 처리하지 않아 물을 아껴 환경을 보호하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이 활성화되거나 똥분위화폐가 통용된다면, 본질적으로 더러운 똥이 친환경적인 오물로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모색한다.

주제어 : 똥분위화폐, 이슬람법, 정결, 세정, 생태화장실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RC: NRF- 2015R1A5A7037825).

I. 서론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사이언스윌든센터는 똥을 눈다는 것을 살아 있다는 증거이자, 가치를 만드는 행위로 여긴다. 더 나아가 하루 한 사람이 누는 똥을 물로 처리하지 않고 바이오에너지와 비료로 만들 때의 가치를 10꼴로 삼는 똥분위화폐를 고안하여 타인과 착한 가치를 나누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똥분위화폐는 기존 화폐가 지닌 가치 기준을 넘어 가치의 중심에 인간을 두고, 인간을 인간 본연의 가치로 되돌려 주는 능력을 지닌 화폐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지닌 대안화폐 프로젝트다(조재원, 2021).

똥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 물을 아끼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에 환경과 윤리 의식이 높아진다. 똥 바이오에너지를 보는 시각이 바뀌면 경제와 정책으로 관심이 이어져 똥분위화폐는 사회적 가치를 더할 수 있다(조재원, 2021). 똥분위화폐는 화장실, 똥 에너지 생산시설, 똥 바이오에너지 이송 배관, 똥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전기 발전 시설, 똥 바이오 에너지를 연료로 쓰는 마을버스, 똥 에너지를 이용하는 식당, 똥과 오줌으로 만든 퇴비와 액비로 농사를 짓는 농토 등 새로운 차원의 자원을 만든다(조재원, 2021).

똥을 돈으로 만든 UNIST 사이언스윌든센터의 똥분위화폐는 항상 더러운 것으로 취급되며 각종 제한을 받아 온 똥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돈으로 만들었다. 냄새나고 거부당하는 똥이 환영받는 돈으로 신분 세탁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화폐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똥이 정(淨)과 부정(不淨)의 이분법으로 똥을 설명하는 이슬람교에서도 인식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까? 정결을 신앙의 절반으로 여기는 이슬람 신앙 전통에서도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은 가능하다. 똥분위화폐는 생태화장실이 아니라 대안화폐 프로젝트이지만, 똥과 똥 바이오에너지 인식이 바뀌면 경제와 정책에 관심을 보여 사회적 가치를 더 하는 것처럼, 이슬람에서도 물로 똥을 처리하지 않아 물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바이오에너지와 양질의 퇴비 만드는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이 가능하기에 똥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슬람의 전통적인 똥 인식과 친환경적 생태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슬람의 정결(淨潔) 개념

1. 정(淨)과 부정(不淨)의 이분법

이슬람 신앙 전통에서 정결례(淨潔禮)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슬람의 경전 꾸르안은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정결한 사람을 좋아하신다(2장 222절, 9장 108절)”고 말한다. 또 “정결은 신앙의 절반(Al-Tuhur shatr al-Iman)”(Ibn al-Hajjaj, 2007: 354, n.534)이라는 전승이 있을 정도로 정(淨)과 부정(不淨)의 이분법적 사유를 이슬람법으로 확립한 이슬람 전통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정의 방법도 세세하게 규정한다.

이슬람법은 정결하지 못한 것을 피, 오줌, 똥처럼 본질적으로 불결하여 세정이 불가능한 것(‘ayn najis)과 이를 접촉하여 더러워진 상태가 된 것(najasah)으로 나눈다. 더러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정결례(taharah)를 행해야 한다. 똥은 본질적으로 더럽기에 그 자체는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지만, 똥을 만진 사람은 세정으로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불결한 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데, 각 법학파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Mughniyya, 2001). 여기서는 하나피(Hanafi), 말리키(Maliki), 샤피이(Shafi‘i), 한발리(Hanbali) 등 순니 4법학파와 시아 자으파리(Ja‘fari) 법학파의 의견을 정리한다.

- 개: 개는 더러운 동물이다. 개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불결하다. 단, 말리키 법학파는 개가 핏은 그릇은 불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의 명령이기에 7번 씻는다. 샤피이 법학파와 한발리 법학파는 7번을 씻되, 7번 중 한 번은 흙으로 씻어야 한다. 시아 자으파리 법학파는 한 번은 흙으로, 두 번은 물로 씻는다.
- 돼지: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다. 시아 자으파리 법학파는 돼지를 접촉하면 물로 7번 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체(mayta): 육상 동물의 사체는 모두 불결하다. 순니의 경우 하나피 법학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법학파는 인간의 시체를 불결하게 보지 않는다. 하나피 법학파는 시체를 씻겨야 불결하게 여기지 않는다. 시아 자으파리 법학파 역시 시체는 씻기면 불결하지 않지만, 무슬림 시체일 경우에만 그러하다. 비무슬림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모두 불결하다.
- 피: 순니 법학파는 모두 피를 불결하게 본다. 단, 순교자의 피, 도살한 동물의 몸에 있는 피, 생선이나 벌레의 피는 예외다. 시아 자으파리 법학파는 모든 피를 다 불결하게 여긴다.
- 정액: 말리키 법학파, 하나피 법학파, 시아 자으파리 법학파는 인간과 동물의 정액을 모두 불결하게 여긴다. 단, 시아 자으파리 법학파는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동물의 정액과 피를 모두 깨끗하다고 간주한다. 샤피이 법학파는 인간 및 개와 돼지를 제외한 모든 동물의 정액을 정결하게 여긴다. 한발리 법학파는 인간과 식용 동물의 정액만 정결하게 여기고 그 외 동물의 정액은 불결하게 본다.
- 고름: 순니 법학파는 모두 고름을 불결하게 여기지만, 시아 자으파리 법학파는 깨끗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인간의 오줌과 똥: 모든 법학파가 불결하게 여긴다.
- 동물의 배설물: 모든 법학파가 인간의 배설물을 먹는 동물의 배설물을 불결하게 보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밖의 경우는 법학파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이는 아래 3장에서 다룬다.

- 술: 모든 법학과가 예외 없이 불결하게 여긴다. 시아 자오파리 법학과는 술이 외부 조건에 따라 건조하게 되었어도 불결하다고 판단한다.
- 구토물: 시아 자오파리 법학과만 제외하고 순니 법학과는 모두 구토물을 불결하게 여긴다.
- 마디(madhy)와 와디(wadhy): 마디는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경우 나오는 쿠퍼액이고, 와디는 성적으로 절정에 이르러 정액이 나온 후 나오는 액으로 소변을 볼 때 나오는 하얀 액이다. 구토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아 자오파리 법학과는 이 둘 모두 정결하게 여긴다. 그러나 하나피 법학과, 말리키 법학과, 샤피이 법학과는 둘 다 불결하다고 간주한다. 한발리 법학과는 식용 동물의 마디와 와디는 정결하나, 식용할 수 없는 동물의 마디와 와디는 불결하다고 본다.
- 땀: 시아 자오파리 법학과는 자위, 간통, 항문성교, 수간 등 불법적인 성행위를 한 사람이 흘린 땀은 불결하게 여긴다.
- 남은 음식: 하나피 법학과, 샤피이 법학과, 한발리 법학과는 개와 돼지가 먹고 남긴 음식은 불결하게 여긴다. 한발리 법학과는 고양이나, 고양이보다 작은 쥐나 족제비 같은 동물을 제외하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먹다 남긴 물로 정결례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말리키 법학과는 개와 돼지가 먹다 남긴 물은 깨끗하여 마시거나 정결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나피 법학과는 술을 마신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 쥐를 방금 잡아먹은 고양이가 먹다 남긴 음식, 늑대, 사자, 표범, 레오파드, 여우, 하이에나가 먹다 남긴 음식을 불결하다고 규정한다. 시아 자오파리 법학과는 개와 돼지처럼 불결한 동물이 남긴 음식은 불결하나, 불결하지 않은 동물이 남긴 음식은 깨끗하다고 보고, 식용이나 불식용 동물에 따른 정결과 불결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2. 하다스(al-hadath)와 나자스(al-najas)

위에 열거한 불결한 대상을 접촉하면 의례적으로 불결한 상태가 된다. 불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다스(al-hadath)와 나자스(al-najas)로 분류한다. 하다스는 몸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나자스는 외부의 영향으로 오염된 것을 뜻한다. 하다스와 달리 나자스는 더러운 것이 묻어 불결한 상태다. 예를 들어 오줌이 묻은 옷이 그러하다. 최대한 오염원에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염되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정결한 상태로 돌릴 수 있다.

하다스는 다시 큰 하다스(al-hadath al-akbar, major impurity)와 작은 하다스(al-hadath al-asghar, minor impurity)로 나눈다. 큰 하다스는 정액, 성교, 여성의 성액(性液), 월경, 출산 출혈로 더러워진 상태이고, 작은 하다스는 땀, 오줌, 방귀, 마디, 와디에 따라 불결한 경우다. 기절 또는 수면 상태는 우리가 의식을 조정할 능력이 없기에 나도 모르게 더러운 것에 오염될 수 있는 상태다.

이슬람은 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부부간 사랑을 권장하기에 성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만, 신체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는 예배를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정결례를 행하여야 한다. 샤피이 법학과와 한발리 법학과는 남녀 간 신체적 접촉을 작은 하다스로 간주하지만, 말리키 법학과는 성적인 접촉만이 하다스라고 한다. 반면 하나피 법학과는 성행위 외의 남녀 간 신체적 접촉이 하다스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모든 법학과가 하다스로 더러워진 상태에 놓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결함을 전파하지는 않는다고 본다(Hallaq, 2009: 228-229; Gauvain, 2005: 340).

큰 하다스든 작은 하다스든 불결한 상태라면 정결례를 행해야 한다. 큰 하다스의 경우 먼저 정결해지겠다는 마음의 의지(niyyah)를 다진다. 정결례는 무슬림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순결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슬림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깨끗해지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없다면 세세한 정결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도와 함께 정결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신앙 행위를 잘하겠다는 의향을 지녀야 한다. 이때 “신이시여, 저를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구하소서(A‘udhu billahi min ash-Shaytan ir-rajim)”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큰 하다스는 구슬(ghusl), 즉 대정례(大淨禮)를 해야 한다. 몸 전체를 물로 씻어야 한다.

작은 하다스 역시 마음의 의지를 다진 후 우두(wudu’), 즉 소정례(小淨禮)를 해야 한다. 우두는 머리, 얼굴, 팔꿈치, 상박, 손, 발목, 발을 물로 닦는다.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 전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세정례다. 그런데 큰 하다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구슬을 한 후 다시 우두를 해야 한다. 물이 없으면 흙이나 모래를 사용하여 정결례를 행하는데 이를 타암뭉(tayammum)이라고 한다.

물은 정화를 하는 최상의 물질이지만 상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체가 깨끗하면서 다른 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물로, 타후르(tahir)급이다. 두 번째는 깨끗하지만 정화를 할 수 없는 물로, 타히르(tahir)급이다. 순니 법학과에서는 하나피 법학과만 타히르급 물도 정화 능력이 있다고 여긴다. 세 번째 단계는 오염되어 불결한 물이다. 보통 216리터 이상의 물이나 정제된 없이 흐르는 물은 오염물이 섞여 있어도 타후르급으로 여긴다(Hallaq, 2009: 229).

3. 수난 알피뜨라(Sunan al-Fitrah)

정결을 강조하는 이슬람은 인간 본연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언자의 전승에 따라 본연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예언자의 전승을 따르는데, 이를 ‘수난 알피뜨라’라고 한다. 5가지를 행해야 하는데, 이는 할레(포경수술), 음모 제거, 콧수염 정돈, 손톱 정리, 겨드랑이 털 제거다(Bukhari, 1997: 420, n.5891). 이에 턱수염 기르기, 시왁(siwak, 나뭇가지 칫솔)으로 이 닦기, 콧속을 물로 씻기, 손가락 씻기, 이스틴자(istinja’)(배변 후 성기를 닦는 것)를 더하기도 한다(Tirmidhi, 2007: 134, n.2757). 주기적으로 실행하여 개인적 위생을 유지하는데, 40일을 넘기

면 안 된다(Ibn Majah, 2007: 264, n.295)

Ⅲ. 이슬람과 동

1. 배설 규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세한 정결 개념을 발전시킨 이슬람법에서 동은 당연히 더럽다. 인간의 동뿐 아니라 동물의 동도 더럽다. 법학과마다, 법학자마다 차이가 있기에 모든 의견을 망라할 수는 없지만, 배설물 관련 규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Khurasani, n.d.; Mughniyya, 2021).

- 순니와 시아 모든 법학파가 인간의 동과 오줌을 더럽게 여긴다.
- 동물의 배설물: 모든 법학파가 인간의 배설물을 먹는 동물의 배설물을 불결하게 보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밖의 경우는 서로 의견이 서로 다르다. 시아 자오파리 법학파는 새의 배설물과 피를 밖으로 흘리지 않는 모든 동물의 배설물은 더럽다고 보지 않는다. 피를 밖으로 흘리더라도 낙타나 양처럼 식용 동물의 배설물은 정결하나, 곰이나 육식동물의 배설물은 불결하게 본다. 또, 식용해도 좋은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동물의 배설물은 모두 정결하다고 본다. 순니파의 경우, 샤피이 법학파는 모든 동물의 배설물을 불결하게 보지만, 하나피 법학파는 비둘기나 참새처럼 공중에서 배설하는 새의 배설물은 깨끗하지만, 닭이나 거위처럼 육지에서 배설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더럽게 여긴다. 반면 한발리 법학파와 말리키 법학파는 식용 동물의 배설물 외에는 모두 불결하다고 간주한다.
- 돼지처럼 섭취가 금지된 동물의 동과 오줌은 더럽다.
- 돼지가 기른 양의 대소변은 더럽다.
-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왼발 먼저, 나올 때는 오른발 먼저 디딘다.
-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눈과 코만 보이게 하고 몸을 가리고, 무게의 중심은 왼발에 둔다.
- 용변을 볼 때 해나 달을 보아서는 안 되지만, 성기를 가릴 때는 허용한다.
- 야외에서 대소변을 볼 때 반드시 성기를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 바람을 맞거나, 길가나 집 문 앞이나 과실수 그늘 밑에서 용변을 보면 안 된다.
- 용변을 보면서 먹거나, 시간을 오래 끌거나, 오른손으로 씻어서는 안 된다.
- 불필요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알라를 찬미하는 말을 하는 것은 괜찮다.
-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곳, 공공재(公共財), 무덤, 모스크, 예배소에서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 대소변을 볼 때 메카 방향을 향하거나 등져서는 안 된다.
- 성스러운 상징이나 글이 적힌 것을 배변 처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대소변을 참아서는 안 된다. 만일 건강에 해로울 때는 참는다.
- 예배 전, 자기 전, 성교 전, 사정 후에 소변을 본다.

이러한 규정을 모든 무슬림이 세세하게 다 지키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올바른 행위를 중시하는 이슬람교 신앙 전통에서 법학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전 꾸르안, 하디스(예언자의 언행), 공동체의 합의(ijma'), 유추(qiyas) 등 이슬람법리 원칙(Usul al-Fiqh)을 활용하여 알라의 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고, 저마다 신앙인이 지켜야 할 법을 위에 인용하여 요약한 것처럼 법 해석의견, 즉 파트와(fatwa)로 제시하였다.

2. 배변 장소와 신앙 행위

무슬림 전승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는 용변을 볼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아나스 이븐 말릭은 말하였다. “예언자께서는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 ‘오, 알라시여, 사악한 것과 더러운 것에서 저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셨다”(Bukhari, 1997: 139, n.142; Ibn Majah, 2007: 265-266, n.298).

아나스 이븐 말릭은 말하였다. “예언자께서는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오, 알라시여, 용서를 구합니다. 해로움을 앗아가시고, 치유하신 알라를 찬미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Ibn Majah, 2007: 267, n.301).

아이샤가 말하였다. “예언자께서는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Ibn Majah, 2007: 266-267, n.300; Abu Dawud, 2008: 42, n.30)

기도문에서 볼 수 있듯, 배변 장소는 사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는 곳이다. 더러움의 대명사인 화장실과 모스크는 상극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신장(新疆) 위구르(Uyghur) 지역 모스크를 헐고 그 자리에 공중화장실을 건설한 것을 두고 정결을 중시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심성을 겨냥한 공격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인간의 배변이 있는 곳은 더럽기에 예배 장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는 인간과 다소 다르다. 동물의 똥과 오줌이 다 더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돼지 처럼 섭취를 금하는 동물이거나 혈관을 뿜 때 피가 크게 튀어나오는 동물의 배설물은 불결하나, 섭취를 허락한 동물의 배설물은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섭취가 허락된 가축을 키우는 울타리 안에서는 배설물이 있어도 예배를 할 수 있다. 단, 샤푸이 법학파는 배변을 피해예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배변 후 세정

배변과 관련하여 이슬람교 신앙 전통은 다른 신앙 전통과 달리 똥과 오줌을 누 후 처리 방법을 세세하게 규정한다. 대소변 처리법은 이스틴자(Istinja'), 잔뇨 처리법은 이스티브라(Istibra')로 각각 구분한다.

대소변을 본 후 행하는 이스틴자는 앉아서 왼손으로 한다. 항문과 성기를 물로 닦는다. 대변의 경우 물이 없으면 종이 3장이나 천 3조각이나 돌 3개로 닦는다. 그러나 배변이 과하거나 배변 후 더러워진 범위가 넓거나, 피와 같이 부정한 것이 섞였을 때는 반드시 물로만 닦아야 한다. 종이나 천 조각, 돌은 3개 모두 사용해야 하고, 필요할 시 더 써야 한다. 소변 후 성기는 물로 최소 2번 닦아야 한다.

이스티브라는 소변을 본 후 잔뇨를 처리하는 세정법이다. 대변과 마찬가지로 세정에 사용하는 손은 왼손이다. 가운데손가락으로 항문을 3번 누르고,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성기를 눌러 잔뇨를 짜낸다. 이스티브라를 한 후에도 잔뇨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스티브라를 했다면, 잔뇨가 나와도 정결한 상태로 간주한다. 반면 이스티브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뇨가 흘러나오면 불결한 상태다. 이 경우에는 다시 세정을 해야 한다. 즉, 이스틴자를 한 후 이스티브라를 해야 한다. 또 이스틴자를 할 때 물이 없어서 돌로 닦고 말린 후 이스티브라를 하였는데도 잔뇨가 나오면 반드시 다시 세정례를 해야 한다.

정결을 강조하는 이슬람교 신앙 전통에서 거짓말과 함께 잔뇨는 죽은 후 무덤에서 벌을 받는 원인이 될 정도로 피해야 하는 더러움의 원천이다. 무슬림 전승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잔뇨 제거를 소홀히 한 사람들이 사후 무덤에서 벌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아부 바크르가 말하였다. “알라의 사도께서는 무덤 둘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있는데, 중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명은 소변에 더러워졌고, 다른 한 명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Ibn Majah, 2007: 291-292, n.349).

이렇게 세심하게 잔뇨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줌이 조금이라도 튀어 몸을 오염시키는 것 또한 대단히 경계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슬림 남성은 보통 서지 않고 앉아서 소변을 본다. 그러나 서서 오줌을 누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주로 앉아서 소변을 보았지만, 서서 본 기록도 있고, 이러한 기록이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Damanhuri, 2016: 153). 앉거나 서는 것보다는 오줌이 튀어 몸을 오염시키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무슬림 문화권 국가에서 서서 오줌을 누는 소변기에 소변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여 주변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좋은 예다.

4. 자연발효 생태화장실

정결례가 치밀하게 발전한 이슬람 신앙 전통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배설물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창조적인 작업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문화권 국가에서는 이슬람법을 응용하여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일본과 한국 같은 선진국처럼” 깨끗하게 바꾸는 작업을 시도 중이다(Rahim 2005: 71). 화장실을 배설의 장소만이 아니라, 아이 기저귀를 갈고, 얼굴 화장을 고치고, 세안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다면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배설물을 톱밥이나 흙과 섞어 발표시킨 후 비료로 사용하는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은 가능할까? 이슬람 신앙 전통이 규정하는 배설처리법을 고려하면 생태 화장실은 불가능하지 않다. 물로 씻어내는 현대 수세식 분뇨처리법이 사용되기 이전에 무슬림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예멘과 아프리카의 잔지바르(Zanzibar),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Kyrgyzstan)에서는 물을 쓰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배설 후 세정 처리를 화장실 밖에서 하였다(Winblad, Simpson-Hébert, 2004: 63). 이처럼 배설 후 세정 처리를 하는 시설을 화장실 밖에 둔다면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은 가능하다.

그런데 자연 발효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변과 대변을 분리해야 한다.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양변기보다 좌변기를 더 선호하기에 대소변 분리 좌변기가 설치된 생태 화장실이어야만 발효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슬람교 신앙 전통은 인간의 배설물을 재처리과정을 거쳐 생태 비료로 쓰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냄새를 제거한 물 없는 생태 좌변기를 설치하고, 물로 세정이 가능한 공간을 따로 둔다면, 생태 화장실은 가능하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을 물 없는 화장실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여기는 시각이 자연발효 생태화장실 보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있다(Branstrator, 2014: 32; Nawab et al., 2006: 244). 말레이시아의 경우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을 법제화하였다(Warner, 2004: 5-6).

현재 대다수 무슬림 국가에서 청결한 화장실 보급률은 무척 낮은 편이고, 엄격한 정결법과는 달리 부정한 것을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슬람법의 정결 규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현재 무슬림 세계에는 깨끗한 음용수가 부족한 저개발국이 상당히 많다. 물 없는 화장실을 사용하면 일인당 하루 22.5 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다(Wilbur, 2014: 14). 따라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물을 쓰지 않는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을 보급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IV. 결 론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정결례가 정밀하게 발달한 이슬람교 신앙 전통은 배설이 가능한 장소,

배설 후 세정법 등 배변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을 제시한다.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규정된 똥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는 어렵다. 그러나 처리 과정을 거친 배설물을 비료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부정한 물질이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처리한다면, 생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똥이기도 하다.

UNIST 사이언스월드센터의 똥본위화페는 똥을 바라보는 시각을 혐오스러운 것에서 생태 친화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물질로 바꾸어놓았다. “정결이 신앙의 절반”이지만, 이슬람교 신앙 전통에서도 똥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물질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저개발 물 부족 국가가 많고 청결한 화장실 보급률이 낮은 무슬림 세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을 보급할 경우 물로 똥을 처리하지 않아 물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며,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은 남성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가사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Wilbur, 2014: 55-56).

기존 화석에너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친환경 연료 개발에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대의와 정결을 중시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은 똥본위화페와 같은 창조적인 틀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다. 이슬람법은 단순히 정결을 규제만 하지 않는다. 똥은 더럽고, 만지면 반드시 씻어야 하지만,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에서는 새로운 에너지로 재탄생한다. 똥을 본질적으로 불결한 것으로 보는 이슬람법 규정에 근본적 변화가 일기는 어렵겠지만, 자연발효 생태화장실이 활성화되면 똥을 지금보다는 더 친환경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References

<단행본>

- Abu Dawud. (2008). *Sunan Abu Dawud*. Vol. 1. Riyadh: Darussalam.
- al-Bukhari, Muḥammad. (1997). *Sahih al-Bukhari*. Vol. 1. Riyadh: Darussalam.
- Hallaq, Wael B. (2009). *Sharī'a: Theory, Practice, Transform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bn al-Hajjaj, Abū al-Ḥussain Muslim (2007). *Sahih Muslim*. Vol. 1. Riyadh: Darussalam.
- Ibn Majah, Muhammad b. Yazid. (2007). *Sunan Ibn Majah*. Vol. 1. Riyadh: Darussalam.
- al-Tirmidhi, Abu 'Isa Muhammad Abu 'Isa. (2007). *Jami' at-Tirmidhi*. Vol. 5. Riyadh: Darussalam.
- Winblad, U., Simpson-Hébert, M., eds. (2004). *Ecological Sanitation*.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tockholm.

<학술지 논문>

- Damanhuri, Adi. (2016). Hadith about the Prophet Muhammad Pbuḥ Own Pee Standing in Simultaneous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Studies*, 3(1), 138-156.
- Gauvain, Richard. (2005). Ritual Rewards: A Consideration of Three Recent Approaches to Sunni Purity Law. *Islamic Law and Society*, 12(3), 333-393.
- Nawab, B., Nyborg, I. L. P., Esser, K. B., and Jenssen, P. D. (2006). Cultural Preferences in Designing Ecological Sanitation Systems in North West Frontier Province. *Pakista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6(3), 236-246.
- Rahim, Asia Abdul. (2005). A Concept of Clean Toilet from the Islamic Perspective. *Journal of Islamic Built Environment*, 1(1), 71-84.

<학위 논문>

- Branstrator, Julia (2014). *The Barriers To Adopting Composting Toilets Into Use In Urban And Suburban 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Master Thesis, Purdue University.
- Wilbur, Patricia Anna Marie (2014). *An Evaluation of the Use of Composting Latrines and the Perceptions of Excrement in Ngäbe Communities in Panama*.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인터넷 자료>

- 조재원 (2021.08.09.). [똥본위화폐] 20. 똥본위화폐의 소개. 불교닷컴. Retrieved November 22, 2021, from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95>
- Khurasani, Ayatullah al-'Uzma Shaykh Husain Wahid. (n.d.). Islamic Laws. Retrieved January 28, 2021, from <http://wahidkhorasani.com/english/books>
- Mughniyya, Muhammad Jawad. (2001). The Five Schools of Islamic Law. Retrieved January 28, 2021, from <https://www.al-islam.org/five-schools-islamic-law-muhammad-jawad-mughniyya/1-taharah-ritual-purity>
- Warner, William S. (2004). Cultural Influence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Compost Toilets: Psychology, Religion and Gender. Retrieved January 28, 2021, <https://www.ircwash.org/sites/default/files/Warner-2004-Cultural.pdf>